

2세 남아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놀이치료 사례

이 숙[†], 노명희*, 최정미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목포전문대학 유아교육과

A Case Study of Play Therapy for Aggressive 2 Years Old Boy

Sook Lee, Myoung-Hee Roh*, Jung-Mi Choi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Mokpo Junior College*

ABSTRACT

This case study was designed to test the effect of eclectic play therapy with parent's counseling and education programs for aggressive 2 years old boy. It was found that the boy had some important problems about emotion control ability, social problem-solving skill, and basic daily living practices adding to aggressive behavior. After the treatment of 10 sessions which taken once in a week, he showed much improved ability about emotion control, social problem-solving skill and basic daily living practices, and didn't show any more aggressive behavior without proper reason. (*Korean J Human Ecology 1(1) : 1-13, 1998*)

KEY WORDS : play therapy, eclectic play therapy, aggressive behavior.

1. 서 론

만 2세는 발달적으로 볼 때 제1반항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자립심의 출현과 동시에 부모에 대한 반항이나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유아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이에 대한 성인들의 반응으로부터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하고 발달시켜 나간다. Maccoby(1980)는 생후 2년동안에는 적대적인 공격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2세 반 이후부터 진정한 의미의 공격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그는 유아기의 공격성이 사회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라고 주장하여, 공격성이 정상적인 발달의 특성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일부 유아에게서 나타나는 공격적인 행동들은 반복적이고 그 양상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
300 Yongbong-dong, Buk-gu, Kwangju 500-757, Korea
Tel : 062-530-1323, Fax: 062-530-1329
E-mail : sooklee@orion.chonnam.ac.kr

한편 놀이는 유아에게 있어서 생활의 에너지이며,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로 유아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유아는 놀이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흥미를 표출하며, 놀이를 함으로써 타인과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원만하게 이끌어 간다(Garvey 1977). 놀이를 하면서 유아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집착이나 억제하고 있는 부분, 공격의 방향, 욕구 및 불안 등을 표현하기도 한다. 놀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여러 가지 문제상황을 해결하는가 하면, 건전한 자아상을 확립하기도 하므로(Axline 1947; Ginnot 1961) 놀이는 유아의 마음속에 쌓인 갈등, 좌절과 불안 등을 해소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한다고 보겠다. 특히 2, 3세의 어린 유아는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언어로 충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놀이치료가 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김재은 1992; Ginott 1961). 이러한 놀이치료의 방법에는 정신분석적 접근, 행동주의적 접근, 인본주의적 접근, 인지적 접근 등의 여러 방법이 있는데, Marion(1991)은 아동의 문제와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법들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절충적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아동기의 공격성을 조장하는 요인들을 보면 욕구좌절과 강화, 관찰학습, TV 폭력물의 시청, 사회인지능력의 부족 등과 가족변인(가족내의 공격성, 부모의 이혼이나 불화, 빈곤, 양육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양육행동 등)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Dubow, Reid 1994). 이 중에서도 유아기의 공격적인 행동에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Eron 등 1991). 이에 따라 유아기의 공격적 행동의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변화시키고 효율적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 또는 상담프로그램이 놀이치료과정에서 병행되어야 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세 유아의 공격적 행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놀이치료의 실제에서 적절한 기법들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절충적 방법을 사용하였고, 부모 교육 및 상담을 병행하여 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공격성의 정의 및 이론

공격성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로 Dollard 등(1939)은 공격성을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관찰자가 공격자의 의도를 추론해야 하고 그 해석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의도만으로 공격적인 행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보겠다(Perry, Bussy 1984). 한편 Buss(1961)은 공격성을 대인간 상호작용 상황에서 유해한 자극을 주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관찰 가능한 결과만을 중시하였다. 그는 공격성을 적대적 공격성과 수단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동자체가 목적이 될 때는 적대적 공격성이라 하였고, 비공격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행동을 할 때는 수단적 공격성이라 하였다. 수단적 공격성은 다시 직접적 공격성과 간접적 공격성으로 분류되는데, 직접적 공격성은

신체적으로 타인과 싸우거나 언어적으로 위협하는 능동적 공격성과 거절이나 반대 등의 수동적 공격성을 포함하고 간접적 공격성은 일정한 대상이 없는 공격행동을 나타낸다. 이외에 Frodi 등(1977)은 공격성을 신체적, 언어적, 직접적, 간접적 공격성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신체적 공격성은 공격대상에게 신체적인 상해나 고통을 주려고 의도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려는 행동이고, 언어적인 공격성은 심리적, 사회적인 해를 끼치는 모든 언어적인 반응을 말하며, 직접적인 공격성은 공격성을 유발시킨 대상을 표적으로 하는 공격성이고, 간접적인 공격성은 공격성을 유발시킨 사람 이외의 다른 대상에 대한 것이거나 또는 일정한 대상이 없는 공격적인 행동이다.

공격적 행동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면, 크게 본능이론, 욕구좌절이론, 사회학습이론, 사회인지이론 등을 들 수 있다. 공격적 행동을 본능으로 보는 입장은 Freud와 Lorenz가 대표적인데, Freud는 공격적 행동이란 인간내부에 흐르는 죽음의 본능이 밖으로 표현되도록 조정된 에너지로서 파괴적 행동이라 하였으며 Lorenz는 공격적 행동이 종족유지를 위한 투쟁의 본능이라 하였다. 욕구좌절가설은 원래 인간의 공격행동을 인간내부에 존재하는 본능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고 외적 조건에 의한 욕구좌절로 설명했는데, Scherer 등(1975)은 욕구좌절 사건이 유기체로 하여금 공격적 행동을 나타나게 할 가능성이 높지만, 욕구좌절만이 공격적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수정하였다. 학습이론에서는 공격적 행동을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행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처음에는 불유쾌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에서 공격적 행동을 보이거나 공격적 행동을 함으로써 정적 보상을 받게 되면 문제 해결 방법으로 공격적 행동을 습득하게 된다. 이런 공격적 행동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더 잘 나타나며 언어적 공격성이 보상받을 때 신체적 공격성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Bandura, Ross 1961). 인지적 접근에서는 자극 그 자체보다는 지각되는 자극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가 단서의 성격을 결정짓고 그에 준하여 적절한 반응이 뒤따르게 된다고 하였다(Nasby 등 1980). 즉, 혐오자극 자체가 공격적 행동을 일으키게 한다기 보다는 그에 대한 개인적 평가 등의 인지적 요인과 인지과정이 개입되므로써 결과적으로 공격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 사회-인지적 견해는 인간의 내적 요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문제해결능력이나 감정이입과 같은 사회인지능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Dubow, Reid 1994).

2. 아동의 공격성과 부모의 양육행동

가족은 아동의 공격성의 획득, 유지, 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동은 학대 경험이나 부부간의 폭력을 보는 것 또는 부정적인 양육행동 등에 의해 공격적인 성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양육행동과의 관련을 보면 냉정하고 거부적이며 신체적인 처벌 등 권위중심의 훈육방법을 사용하는 부모와 자녀의 공격적인 충동에 대해서 허용하는 부모가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자녀를 만드는 것으로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이현순 1982; 장미도 1986; Baumrind 1967; Eron 1982; Olweus 1980). Olweus(1980)의 연구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공격성을 예언하는 변인이 공격성에 대한 어머니의 허용도였으며, 어머니의 냉정하고 거부적인 태도, 아동의 활동적이고 충동적인 기질, 부모의 권위주의

적인 훈육방법의 순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하였다. 이양순(1988)의 연구에서는 부모에게서 거부적 태도나 엄격한 태도, 그리고 모순, 불일치한 태도를 많이 받고 자랄 경우와 공격성에 대한 부모의 허용이 클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창한(1992)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친애적, 자율적, 격려적, 합리적 훈육의 경우에 아동의 공격행동의 정도가 낮은 반면에, 거부적, 타율적, 비난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훈육의 경우에 공격행동의 정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적인 학대를 받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더 공격적이라는 결과들(김정준 1986; 노치영 1988; McCord 1979; Reidy 1977)이 있으며, 부부간의 폭력적 싸움도 아동의 공격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치영 1988; Kalmuss 1984).

양육태도와 유사하지만 좀더 구체적인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의 통제유형 또한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김효정(1991)은 어머니가 권력중심의 강압적인 통제방법을 사용하거나 거부적인 통제방법을 사용할 때보다 설명 등을 통한 귀납적인 통제방법을 사용할 때 아동의 공격성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안명신(1987), 한금희(199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명령 지향적인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3. 놀이치료의 접근방법

놀이치료는 놀이가 자연스러운 자기표현의 매개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유아의 심리치료에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며 놀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카타르시스 효과를 최대의 메커니즘으로 하여 억압되어서 무의식 속에 머물러 있던 정신적 외상에 의한 덩어리를 언어로써 또는 행위로써 외부에 표출함으로써 해서 증상을 해소시키려는 심리요법의 기술이다(김재은 1992).

놀이치료의 시작은 Sigmund Freud(1909)가 한스라는 어린 소년의 치료과정에서 어린이의 마음속에 쌓인 갈등이나 좌절은 정신 치료적 방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Anna Freud는 고전적인 Freud의 이론을 아동분석을 위한 하나의 체계론으로 발전시켜 아동을 관찰하고 진단하는데에 놀이를 이용하였고, 놀이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하였다. Anna Freud가 놀이에 대한 해석을 강조하지 않은 반면 Klein은 Anna Freud와 달리 아동의 초자아가 이미 발달된 것으로 보고 아동에게 놀이에 대한 즉각적인 해석을 해 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신분석적 입장에서의 놀이치료는 아동의 정신 내적 평형의 기본 변화를 추구하거나 유대관계의 확립, 정화, 통찰, 현실검증 및 승화를 통해 인격구조의 새로운 균형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분석적 입장에 기초하여 Levy(1938)는 적극적 놀이치료의 한 형태로 '방출요법(release therapy)'을 소개하였는데, 이 치료의 기본적인 목적은 공포나 공격성, 형제간의 경쟁의식과 같은 힘든 감정들을 방출해 내도록 하는데 있다. 한편, 아동들이 자신의 속도대로 놀며, 놀이상황의 방향과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도록 하는 수동적 놀이치료는 그 이후 다소 수정되어 Rank 이론에 따라 관계요법(relationship therapy)이라고도 불리는데, 관계요법에서는 현재 상태를 중요시하여 치료자와 내담자간의 인간관계를 강화시키고 놀이를 하는 아동의 현재 감정과 행동에 초점을 두며 아동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이다.

비지시적 놀이치료 접근법은 아동내부에 성장을 이끌어 나갈 생명력의 원천이 있다는 가정 아래, 유아의 입장에서 치료과정을 이끌어간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동중심의 비지시적 놀이치료는 Axline(1947)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자기 주도적 놀이치료라고도 불리며 유아가 가장 기분 좋은 상태에서 성장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강요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유아 스스로 정서적 문제를 발산하도록 자유를 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행동적 접근법은 강화와 소거를 통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을 직접적으로 치료해주는 것이다. 인지발달적 접근법은 주로 발달장애아에게 감각운동기에 해당되는 놀이를 제공하여 실시하는 것이다(강위영 등 1995). Fair Play Therapy(치료자 동참 놀이치료)는 어린이와 치료자를 동등한 입장에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시작된 놀이치료로써, 동등한 관계에서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어 본 경험이 없는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유아에게 자신에 대한 주체성을 갖게 하고 효율적인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chaefer, O'Connor 1983). 가족중심 놀이치료는 놀이치료와 가족치료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법으로서 미리 계획되어 있는 놀이상황에 부모, 유아, 치료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법이다. 이는 개별 놀이치료의 효과를 가정 내에서 지속시키기 위해 혹은 유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부모와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일 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놀이치료를 통해 부모들은 치료자를 모델로 하여 효과적인 부모역할 수행능력을 터득할 수 있게 되고 유아와 상호작용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놀이치료 방법과 기법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III. 사례연구

1. 연구대상 유아의 일반적 사항

- * 대 상 : 만 30개월 남아
- * 가족관계 : 부(36세, 대졸, 의사), 모(29세, 대졸, 주부), 여동생(11개월)
- * 주된 문제행동 : 매우 공격적임, 주공격대상은 여동생이지만, 이웃이나 놀이터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아동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물거나 때림.

2. 상담 절차 및 진단도구

- * 접수 상담(1회) : 1995. 10. 13.
- * 심리 검사(1회) : 1995. 10. 20. 유아용 발달진단검사(장영애 1987) 실시
어머니 양육행동검사(임희수 1994),
양육스트레스검사(Abidin 1990)
- * 놀이치료 및 부모상담(8회) : 1995. 10. 13 - 1995. 12. 22.
- * 추후지도(1회) : 1996. 1. 15

3. 상담자

부모상담, 부모교육, 놀이치료를 3인의 연구자가 각각 맡아서 실시하였으며, 문제행동의 분석과 상담 내용의 논의는 함께 하였음.

4. 상담 장소

* 어머니-대상유아, 대상유아-여동생간의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첫 2회는 어머니와 치료 대상 유아 및 그 여동생이 함께 놀이치료실에 있도록 하였음. 그 후의 상담기간에는 대상 유아는 놀이치료실에서, 어머니는 상담실에서 상담을 실시하였음. 추후지도 시간에는 놀이치료실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이 함께 참여하였음.

5. 상담 내용

1) 제1회(1995. 10. 13)

- * 어머니 : 대상 유아가 부산하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자주 듣고, 동생을 많이 때린다. 놀이방이나 주일 학교 유치부, 동네 친구들과는 잘 어울리는 편이다.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대상 유아에게 심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때릴 때는 마구 화를 내곤 한다. 아빠는 너무 바빠서 아이들에게 무관심한데, 최근에는 아이들과 어울린 적도 있다.
- * 이웃의 의견 : 여동생이 1개월 때 이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온 얼굴이 흉터 투성이었고, 그 후에도 가위에 찍힌 자국, 물어뜯긴 자국 등이 심하게 나 있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 주일 학교 유아의 어머니들이 모두 싫어할 정도로 매번 다른 유아들을 떠밀거나 때리고 깨우는 행동을 수 없이 반복하였다.
- * 유아 행동관찰 결과 : 상담자는 아동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놀이치료 및 부모상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음. 동생도 함께 왔는데, 얼굴에 흉터가 나 있었음. 처음 왔기 때문인지 매우 활동적이며 이것저것에 관심을 보임. 발달진단검사 결과 신체발달과 운동기술은 양호한 편이고,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크며 정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 신체적인 접촉을 싫어하며, 치료자가 곁에 가까이 가면 달아난다. 어떤 경우에도 치료자에게 질문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다른데만 쳐다보고 반응이 없고, 엄마가 시간이 되어서 가자고 해도 대꾸도 안하고 놀기만 한다. 동생을 떠밀거나 때리는 행동이 나타남.
- * 행동문제 분석
 - 정서적, 사회적 미성숙 : 감정통제의 결여, 사회적 접촉에 대한 거부 및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이 나타남.
 - 훈육의 문제 : 어머니가 유아에게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며, 유아의 요구에 민감하지도 않았고, 동생을 때리거나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 문제, 치료자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태도 등에 대해 지도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훈육 기술의 문제가 있다고 평가됨. 이후의 어머니 상담시간에 양육행동검사와 양육스트레스검사, 어머니 본인의 스트레스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함.

2) 제 2 회(1995. 10. 20)

- * 어머니 상담 : 어머니에게 양육행동 검사와 양육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였음.
 어머니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수치 : 44 (매우 높은 편)
 아동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 48 (낮은 편)
 어머니 본인의 스트레스 : 79 (약간 높은 편)
 검사 결과를 설명해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무능력감과, 분노를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어머니 자신의 감정 통제능력의 결여에 대해 언급하였음. 따라서 3회부터의 어머니 상담에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부모교육을 포함시켰음.
- * 어머니 : 지난주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2일 전부터 대상 유아가 몹시 힘들게 했다. 몇 가지 점에서 대상 유아를 다루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밥을 잘 안 먹으려 하는데, 어머니는 밥을 안 먹는 일에 매우 신경이 쓰여서 어떻게든 먹이려 한다. 이웃들이 대상 유아가 말썽꾸러기라는 말을 가끔 한다. 대상 유아가 착하고 별 문제가 없는데, 자신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이 유아의 동생도 화가 나면 소리를 마구 지르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 * 유아 행동관찰 결과 : 동생의 얼굴에는 아무 상처가 없었고 지난번 상처도 아물어 있었음. 지난번 보다 부산한 행동은 많이 줄었고, 몇 개의 흥미 영역에 집중했다. 치료자가 처음에 말을 걸고 인사를 했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았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어머니에게 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했고 어머니 곁에 잠시 머물다가 가기도 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이 유아의 요구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하지 못했다. 총을 처음 보는 유아가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를 알지 못하자, 어머니는 그것을 언어로 설명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간단하게 시범을 보였다. 어머니는 11개월 된 동생이 높은 곳에서 있어도 경계하거나 주의를 보이지 않았다. 대상유아가 동생이 갖고 있는 장난감을 뺏다가 동생의 이마를 때려서 빨갱게 부어오름.
- * 행동 문제 분석 : 어머니의 훈육기술의 부족과 정서적 스트레스, 민감하고 자기의 요구에 집중하는 성인과의 접촉이 부족한 것 등이 아동의 공격적 행동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어머니에 대한 상담과 부모교육이 계속 실시되도록 하며, 치료자가 민감하고 아이에게 집중된 성인의 모델이 되어줌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3) 제 3 회(1995. 10. 30)

- * 어머니 상담 : 3회부터 8회까지 2-3세 유아의 발달적 특성, 양육에서의 민감성, 발달적으로 적절한 훈육 등에 관해 대상 유아의 일상생활사건을 중심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음. 또한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음.
- * 유아행동 관찰 : 유아의 옷차림이 단정하고 깔끔해졌으며, 어머니가 예전보다 유아의 외모에 대해 신경을 더 쓴 것 같다. 유아는 지난번보다 안정되고 편안한 모습으로 치료실에 들어왔다. 치료자는 유아에게 가족인형을 가지고 놀자고 제안을 했고, 유아는 순순히 이에 응했다. 유아는 놀이과정에서 부모가 집에서 주로 텔레비전만을 시청하고 부부간의 대화나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표현했다. 꼬마인형이 잘못하여 아빠인형이 야단치는 상황을 표현하면서 심한 분

노를 나타냈고, 꼬마인형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아빠인형과 엄마인형을 때리기까지 했다. 헤어질 때 인사는 하는등 마는등 하고 치료자가 안아 주려고 하자 거부하고, 그 대신 커다란 인형을 안아주라고 하자 인형을 꼭 껴안아주고 갔다.

- * 행동 문제 분석 : 자신을 야단치는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잠재되어 있음. 치료자에 대해 반응이 없던 지난번에 비해 치료자와 함께 놀 때 상호작용을 하였고 밝은 표정임. 부모교육 내용 중에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인사를 전혀 하지 않는 문제, 장난감을 가지고 논 후에 정리하지 않으려 하는 문제 등이 혼욕부족으로 인한 문제로 판단되어 가정에서 어머니에게 1주일간 토큰을 사용하여 보상해 주도록 지도함. 또한 어머니에게 신체적 접촉을 자주 해주도록 하고 대화할 때 가급적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상호작용하도록 하였으며, 유아에게 집중하여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매일 30분 정도 갖도록 하였음.

4) 제 4 회(1995. 11. 6)

- * 유아 행동 관찰 : 대상 유아는 놀이치료실에 들어서면서 부터 징징거리며 들어왔다. 어머니는 자다가 깨어서 그런다고 함. 파리를 보자 갑자기 무서워하며 징징거렸는데, 이는 처음 놀이치료를 시작한 날에 용감하게 파리를 잡으려고 했던 태도와는 상반되는 것임. 몸의 상태가 안좋아서 그런지 유난히 치료자에게 의존적인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지난번보다 부적응 행동을 많이 보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었음. 가족인형을 이용한 인형놀이 장면에서 부모인형이 꼬마인형을 야단칠 때 굉장히 분노에 찬 눈빛으로 부모인형을 던져버리고 꼬마인형을 꼭 안아주는 행동이 몇 번 반복됨. 부부인형이 싸우는 장면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아빠인형을 난폭하게 집어던지곤 하였음. 그러다가 아빠인형이 화를 낸다고 하니까 나머지 가족인형을 다 숨겨버리고 침묵하면서 무반응을 보임. 놀이 도중에 가끔씩 꼬마인형에게 자기는 안때렸다고 말을 함. 오늘 따라 유아는 치료자에게 훨씬 더 많이 의지하였고, 여러 차례 놀이가 끝났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놀려고 하였다. 헤어지면서 치료자가 안아 주자 유아도 치료자를 안아 주었고 뽀뽀도 해주고 갔다.
- * 행동 문제 분석 : 자신에게 민감하고 주의를 집중하여 주며 존중해 주는 태도를 보이는 치료자에게 의존하는 태도가 나타남. 1주일간 아동에게 보여주게 한 어머니의 관심과 주의집중이 어리광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난 것 같음.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

5) 제 5 회(1995. 12. 1)

- * 유아행동 관찰 : 3주간의 공백이 있어서인지 대상 유아는 치료자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 징징거리면서 엄마에게 매달린다. 동생을 안고 있는 엄마에게 자기를 안아 달라고 칭얼대자 엄마는 동생을 내려놓고 안아 줌. 처음에는 어색한 듯 여기저기 조금씩 두리번거리다가 혼자서 책을 봄. 치료자가 옆에 앉아 책을 소리내서 재미있게 읽자, 처음에는 힐끗힐끗 볼뿐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는 함께 책을 보게 되었음. 어느 정도 마음의 경계를 푸는 듯 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익숙해진 듯 치료자에게 장난감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는 놀자고 함. 다시 인형놀이 상황에서 무섭게 생긴 동물 인형을 가지고 엄마, 아빠인형을 심하게 때리다가 던져

버림. 꼬마 인형을 항상 제 옆에 두고서 보호하는데, 꼬마인형을 가엽게 여기는 눈빛으로 치료자에게도 꼬마인형을 잘 주지 않는다.

놀이치료 종료시간 5분전에 이제 곧 갈 시간이라고 알리자 신경질을 내며 무어라고 계속 중얼거린다. 치료자가 “더 놀고 싶은가 보구나” 라고 말하자 고개를 끄덕인다. 몇 번이나 안가겠다고 하다가, 치료자와 다음에 놀기로 약속을 하고 가면서 인사를 하는등 마는등 하고 간다. 치료자가 껴안으면서 인사를 해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음.

- * 행동 문제 분석 : 자신의 분노나 적대감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격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음. 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적응하는 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다음 놀이치료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함. 또한 동생에 대해 돌보아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해 보상해주도록 어머니에게 제안하였음.

6) 제 6 회(1995. 12. 8)

- * 유아행동 관찰 : 대상 유아는 자다가 와서인지 처음부터 징징거리면서 들어왔다. 엄마 등에 업혀 잠시 울면서 있다가 내려와서는 그림물감을 찾았다. 오늘은 엄마가 상담을 받을 동안 동생이 치료실에 함께 있도록 하였다.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동생이 위험한 상황에 있어서 교사가 동생에게로 가자 유아도 동생에게로 와서 그러면 위험하다면서 동생을 쟁겼다. 이러한 행동이 오늘 따라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다. 인형놀이를 통하여 자상하고 꼬마인형과 잘 놀아주는 아빠인형의 역할을 하도록 해보았더니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따라 주었다. 그러나 아빠인형과의 신체적 접촉은 끝까지 거부하였다.

이제 갈 시간이 됐다고 미리 알려주자 저번 때처럼 가기 싫다고 떼를 쓰며 고집을 부리다가 장난감 정리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는 등 마는 등 하면서 갔다.

- * 행동 문제 분석 :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아직 많이 남아 있음. 동생에게는 무관심하거나 가끔씩 때리거나 미는 행동을 보였다가 갑자기 잘 보살피는 등의 행동을 보였음. 그리고 아직도 인사를 잘 하지 않고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으며, 자신의 요구를 언어로 표현하기보다는 떼를 쓰면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대체로 많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 아버지에게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유아와 함께 보내도록 제안하였고, 자주 안아 주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도록 하였다. 어머니에게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의 실제에 대해 부모교육을 실시하였고 가정에서 강화해주도록 하였음.

7) 제 7 회(1995. 12. 15)

- * 유아행동 분석 : 놀이치료실에 가는 도중에 복도에서 대상유아를 만났다. 유아는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달려와서는 치료자를 안았다. 치료자 자신도 유아의 행동에 깜짝 놀란 한편 매우 흐뭇해서 유아를 꼭 껴안아 주었다. 치료실에 들어와서는 책을 보다가 가끔씩 옆에 앉아 있는 치료자에게 “선생님도 읽어” 하면서 몇 권의 책을 건네주기도 한다. 오늘 따라 책을 아주 많이 보았는데 “이건 사과고, 이건 밤이야”라고 하면서 치료자에게 설명도 해준다. 그네를

타자면서 한쪽에 유아와 앉고 다른 쪽을 가리키며 치료자보고 앉으라고 한다. 치료자가 그네를 밀어주자 더 높이 밀어달라고 한다. 그네를 밀면서 치료자가 텔레비전 노래(텔레비전에 00가 나오면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에 00가 나오면 꺼버리겠네)를 불렀다. 노랫말 속에 유아, 동생, 엄마, 아빠를 각각 넣어서 노래를 부르자 다음 대목에서 유아는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를 부른다. 예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빼고 가족 모두를 “꺼버리겠네, 꺼버리겠네”라고 했었다. 그러나 아직 아빠만은 조금 있다가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함.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가서는 뭐라고 계속 중얼거리는데 치료자가 잘 알아듣지 못하여 “다시 한번 말해줄래”라고 하자, 계속 트리를 만지면서 “-- 듣고싶어”라고 한다. “캐롤을 듣고 싶은가 보구나”하니깐 고개를 끄덕인다. 지난번 치료때 치료자가 들려주었던 캐롤송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결하여 듣고싶었던 모양이다. 음악을 틀어주자 만족해하는 웃음을 지으며 다시 책을 보러 간다. 갈 때는 예전처럼 인사를 하는 등 마는 등 하고 갔지만, 더 놀겠다고 떼를 덜 썼고 치료실을 나가는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 * 행동문제 분석 : 아빠에 대한 적대감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 같지만, 가정이나 유아원 등에서 공격적인 행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함. 자신의 요구를 행동이 아닌 언어로 표현하는 횟수가 증가하였고, 감정통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문제해결기술을 계속 가르치고 강화해줄 필요가 있음.

8) 제 8 회(1995. 12. 22)

- * 유아행동 관찰 : 밝게 인사하며 치료실에 들어와서는 자신의 다친 팔꿈치를 보여 주며 다쳤다고 한다. 도서영역에 가서 책을 여러권 가지고 미끄럼틀 위에서 보며 책을 한 권씩 치료자에게 건네 주며 읽으라고 한다. 치료자가 다른 책을 보려고 하면 자기가 아직 안 읽었으니 자기가 읽은 것만 읽으라고 하면서 책을 빼앗는다. 마칠 시간이 되자 유아는 손을 씻고 정리를 하였다. 치료자가 사탕을 주자 동생과 나눠 먹었다.
- * 문제행동 분석 : 유아는 더 이상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동생이나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양보하고 협동하는 태도가 나타남.

9) 제 9 회(1996. 1. 15)

- * 유아행동 관찰 : 대상유아는 동생을 돌보아주고 오빠로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임. 가족놀이에서도 더 이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음.

IV. 논의 및 결론

이 사례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2세 남아를 놀이치료와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을 병행하여 건강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운 예이다. 이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공격성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 그와 연관되어 감정통제능력, 사회적 문제해결기술,

기본적인 생활훈련 등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견되었고, 가장 큰 원인이 어머니의 심리적 불안정성 및 훈육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놀이치료기간 중에 어머니에 대한 상담 및 효율적인 부모 역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짧은 시간에 유아행동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 과정 중에 아동의 행동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또한 문제의 원인이 어떻게 분석되는가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적용하는 절충적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구의 대상이 만 30개월 인 어린 유아였기 때문에 치료자가 놀이 상황의 많은 부분을 계획하고 제공해주는 구조화된 입장을 취하였고, 이러한 접근방법이 어린 유아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웠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미진한 점으로 남아있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절충적 접근방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강위영, 송영혜, 변찬석(1995). 놀이치료. 도서출판 특수교육, 서울.
2. 김정준(1986). 영세지역 새마을 유아원에서 조사한 어린이 학대현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재은(1992). 아동의 심리치료. 배영사, 서울.
4. 김효정(1991). 어머니의 통제유형이 유아의 공격성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노치영(1988).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박창한(1992). 아동의 가정환경특성에 따른 공격행동유형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안명신(1987).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공격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이양순(198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이현순(1982).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임희수(1994). 첫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장미도(1986). 아동의 공격성과 부모의 양육태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장영애(1987). 아동의 가정환경과 발달특성간의 인과모형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 한금희(1992).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공격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청람유아교육연구* 4:134-147.

14. Axline, V.(1947). Play Therapy. Hough Mifflin, Cambridge, MA.
15. Abidin, R.R.(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Pediatric Psyc.
16. Bandura, A., Ross, D.A.(1961). Transmission of aggression through imitation of aggression model.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3:575-582.
17. Baumrind, D.(1967). Child care practices i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ical Monographs* 75:43-88.
18. Buss, A.H.(1961). The Psychological Aggression, John Wiley, N.Y.
19. Dollard, Doob, Miller, Mower, Sears(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CT.
20. Dubow E.F. and Reid G.J.(1994). Risk and Resource Variables in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In: Huesmann L. R., Ed., Aggressive Behavior. pp. 187-192. Plenum Press, N.Y.
21. Eron, L.D.(1982). Parent - child interaction, television violence and aggression of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37:197-211.
22. Eron, L.D., Huesmann, R., Zelli, A.(1991). The Role of Parental Variables in the Learning of Aggression. In: Pepler, D.J., Rubin, K.H., eds. Child Aggression. pp. 169-188.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N.J.
23. Freud, S.(1909). Analysis of a Phobia in a Five-year-old Boy In Standard. 10th ed., Mogarh, London.
24. Frodi, A., Macaulay, J., Thome, P.R.(1977). Are woman always less aggressive than man? A view of the experi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4:634-660.
25. Garvey, C.(1977). Play the Developing Child Serie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26. Ginnot, H.(1961). Group Psychotherapy with Children. McGraw-Hill, N.Y.
27. Levy, D.(1938). Release therapy in young children. *Psychiatry* 1:387-389.
28. Maccoby, E.(1980). Social Development, Harcourt Brace Jovanovich, N.Y.
29. Marion, M.(1991). Guidance of Young Children, Macmillan Publishing Co, N.Y.
30. McCord, J.(1979). Some child-rearing antecedants of criminal behavior in adult 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477-1486.
31. Nasby, W., Hayden, B., Depaulo, B.M.(1980). Attributional bias among aggressive boys to interpret unambiguous social stimuli as displays of hosti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9:459-468.
32. Olweus, D.(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644-660.
33. Perry, D.G., Bussy, K.(1984). Social development, Prentice-Hall, N.J.
34. Reidy, T.J.(1977). The aggressive characteristics of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1140-1145.

35. Schaefer, C., O'Connor(1983). *Handbook of Play Therapy*.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N.Y.
36. Scherer, K.R., Abeles, R.P., Fischer, C.S.(1975). *Human Aggression and Conflict: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